새 책

▶큰나무(김남덕 지음)=김남덕 사진작가가 지난 15년간 강원도 답사를 통해 만난 65개의 나무 이야기와 사진을 담고 있다. 강원인의 삶과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을 부제로 달고 있는 이 책은 나무를 통해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온 강원도 사람들의 생활상과 역사의 단면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문화통신. 2만3000원.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백원근 지음)=도서정가제 44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제도를 자세히 소개한 첫 책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480여 단행본 출판사들의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가 기획하고 출판평론가이며 국내 최고의 출판업계 연구가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가 펜을 잡았다. 책은 도서정가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나아가 '책의 미래'를 살피고, 이 제도가 출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출판인회의. 2000원.

▶빼앗긴 일터, 그 후(장남수 지음)=1970년대 '민주노조의 전설'로 불리는 원풍모방 노조에서 활동하다 1980년 신군부 하에서 해고된 저자가 오늘까지 통과해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자전적 에세이다. 부침을 겪은 한 개인의 서사이자 시대에 대한 섬세한 통찰기로, 개인적·사회적 삶의 궤적을 따라 역사 저편에 사라진 시간, 그리고 연연히 이어지는 시간을 그려냈다. 나의 시간. 1만5000원.

▶음식에서 삶을 짓다(윤현희 지음)=이 책은 저자가 2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음식 사업이야기'다. 사업체를 꾸려가면서 겪은 도전과 좌절, 성공과 실패, 믿음과 배신, 선의와 악의 등을 담아냈다. 이러한 이야기는 책에서 사라진 3막1장, 사라진 3막2장, 사라진 3막3장, 사라진 3막4장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됐으며, 거기에 저자의 스승인 이어령 선생의 추천사까지 보태졌다. 페이퍼백. 1만6000원.

▶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복희씨(김비 지음·박조건형 그림)=이 책은 제주에 사는 복희씨를 통해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함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나 둘 접하다보면 엄마, 할머니에 대해 지녀온 그리움이나 미안함, 애잔함 등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또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파란 바다와 탁 트인 오름, 만만치 않지만 훈훈함이 묻어나는 한라산 등반길 등의 풍경은 제주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김영사. 1만3800원.

▶사다리 걷어차기(장하준 지음·김희정 옮김)=2004년 장하준 교수라는 존재를 한국에 알린 책이자, 저자도 지난 30년 케임브리지 교수 생활의 한 획을 그은 책이라고 꼽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개정판이다. 본문 내용을 보충하는 주가 확대되고, 번역도 새롭게 손봤다. 부키. 2만원.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경쟁이 아닌 부쟁, 욕망이 아닌 무욕을

도올 김용옥의 '노자가 옳았다'

'노자 도덕경' 우리말로 코로나 시대 '허의 문명'

첫 장을 열면 책을 엮은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곧바로 '노자 도덕경' 안으로 독자를 이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道可道 非常道'(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는 어떤 규정된 관념의 틀 속에 가두지 말라는 뜻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이 언제나 그렇게 지속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2500년 전 노자의 '말씀'이 격변하는 21세기에 닿았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이 81장에 걸친 '노자 도덕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그 뜻을 해설한 '노자가 옳았다'이다.

도올이 노자를 접한 시기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때였다. 노자를 통해 학문의 진로를 동양철학으로 정한 그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노자를 핵심축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학문을 축적해왔다. '노자가 옳았다'는 지난 노자연구를 총결산한 노작으로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노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도덕경 3장의 한 대목을 보자. '不尙賢 使民不爭'(불상현 사민부쟁,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지니.) 도올은 여기에서 지금의 대학입시병이나 스펙 운운하는 사회병태에서 생겨나는 가치서열의 조작을 읽는다. 노자는 상현의 사회구조화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경쟁'이라고 갈파했다. 경쟁하면 문명의 질서에 예속돼 통치가 매우 용이해지고 가치관의 획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자의 정치철학은 근원적으로 '쟁'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였다.

현재의 우리 문명은 경쟁구조와 경쟁심을 기본 동력으로 삼아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같은 문명 발전의 귀결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세계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닐까.

무엇을 채우려는 인간의 작위가 작동해온 우리 문명의 근본적인 자세 변환을 요구받고 있는 때에 노자는 일찍이 부쟁(不爭)을 말했다. 노자의 철학은 무위의 철학이고 비움인 허(虛)를 존중한다. 허가 있어야 자연의 순환이 가능하고, 인간 존재의 순환이 가능하고, 문명의 순환이 가능하다. 도올은 이제부터라도 노자의 통찰을 받아들여 '허의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자고 호소한다. 통나무. 2만7000원.

진선희기자

당연한 건 없다… 현상 밑에 숨겨진 1㎝

100편 키워드로 엮은 조이엘의 '1센티 인문학'

서귀포 앞바다는 동중국해다,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제주도는 과연 평화의 섬일까? 이런 제목으로 실린 이야기는 주제당 5쪽을 넘지 않는다. 짤막짤막하게 담아낸 지식들인데 그 짧은 분량을 작성하기 위해 뒤적인 참고 문헌들이 적지 않다. '매일 1㎝씩 생각의 틈을 채우는 100편의 교양 수업'이란 부제로 엮인 조이엘의 '1센티 인문학'이다.

제주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일상에서 찾은 100편의 키워드를 100편에 걸쳐 풀어냈다. 역사, 철학, 문학, 종교는 물론 각종 사회 이슈까지 다룬 100편은 단편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독자의 머릿속을 자극하고 생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

'서귀포 앞바다는 동중국해다'에서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배웠지만 동중국해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유배인 추사가 제주에서 맞은 바람의 5할쯤은 동중국해에서 불어왔고, '폭풍의 화가' 변시지가 그린 바다도 대부분 동중국해다.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에선 문제부터 틀렸다는 점을 짚는다. 이어도는 땅이나 섬이 아닌 그냥 암초이기 때문이다. 암초는 국제법상 누구의 영토도 될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수중 암초이므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 '제주도는 과연 평화의 섬일까?'란 질문엔 동중국해를 지배해야 하는 중국 군부의 숙원 사업을 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도와 마라도 앞바다는 일제강점기 때 그랬듯 주변 강대국의 욕망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며 평화가 단번에 깨질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이밖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로 현상 밑에 숨겨진 1㎝를 들여다보고 생각의 두께를 1㎝ 늘리도록 이끈다. 100편 제목마다 해시(#) 태그를 달아 SNS 사용에 익숙한 독자들이 특정 주제를 연결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언폴드. 1만58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강정효 사진집 '폭낭'

강정효가 촬영한 덕천리 댓돌.

제주 마을 지킴이 사라지게 둘 텐가

제주 마을마다 수령이 오랜 폭낭('팽나무'의 제주 방언)이 하나씩 있었다. 폭낭은 단순한 나무를 넘어 마을의 구심점 역할이자 고향을 상징해왔다. 민간신앙의 성소에도 당의 신목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나무가 폭낭이다. 2008년 제주도가 '제주문화상징' 99선 중 하나로 폭낭을 주저없이 꼽은 이유다.

한라산, 화산섬 돌, 제주 거욱대, 제주 돌담 등을 주제로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제주가 품은 이야기를 풀어내온 강정효 작가가 이번엔 사진집 '폭낭'을 엮었다. '제주의 마을 지킴이'란 부제를 달고 현장을 누비며 틈틈이 촬영해온 제주 지역의 폭낭을 한데 모았다.

신목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4·3 학살의 현장에도 폭낭들 쇠락하는 공동체 문화 증거

사진집은 신목(神木), 4·3의 기억, 댓돌과 폭낭으로 나눠 폭낭에 스민 제주 역사와 문화를 전한다. 흑백으로 담긴 폭낭들은 공통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본향당신의 신목 기능을 하는 폭낭은 어제의 모습이 아니다. 신목은 신령이 나무를 통해 강림하거나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믿음의 산물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신당들이 개발바람에 훼손되면서 신목도 원형이 바뀌고 있다. 작가는 "인간의 탐욕에 신들도 쫓겨나고 있다"고 했다.

폭낭은 4·3 학살의 현장도 지켜봤다. 북촌리 당팟, 동복리 장복밧, 교래리, 가시리 안좌동 등 참혹한 죽음이 벌어지던 그곳에 폭낭이 있었다. 명월리 폭낭 군락은 무장대 은신처가 될 수 있다며 토벌대 측에서 제거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호소로 간신히 화를 면했다.

폭낭과 댓돌도 급격한 도시화 속에 도로 확장,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베어내고 철거되고 있다. 폭낭의 부재는 나무 하나가 수명을 다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폭낭 아래 댓돌에 모여 마을 대소사를 논의하던 공동체 문화가 희미해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강 작가는 사진집에서 줄곧 팽나무를 방언인 폭낭으로 칭했다. '폭'이 열리는 수목이기에 팽나무 분포도가 높은 제주에선 이 나무의 표준어가 폭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그루. 2만5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현 공 화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을 축하드리며
평소 봉사정신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사회와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표창

양 수 범
(노형동분회 사무장)
(배우자 : 홍희선)

2020년 '제24회 노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가정과 사회에 존경받는 아버님, 할아버님 앞날의 건강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가족 모두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아들 양우석, 며느리 한민아, 딸 양연재, 사위 장행관
손자·손녀 양승현, 소연, 외손자·외손녀 장기웅, 지혜, 지희